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6월 11일(수) 제 3109호

李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특검정국 몰아친다

10일 국무회의서 의결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재가
최장 연말까지 역대급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무산되었던 이 3대 특검법이 본격 가동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내란 및 김건희 관련 비위 의혹과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등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 8개가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검사 120여명(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상병 20명)이 파견되고, 이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440여명이 차출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 실시에 따른 예산이 내란, 김건희 각각 155억원, 채상병 78억원 등 총 388억원에 이르고, 수사기간은 내란·김건희 90일, 채상병 6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연말까지는 특검이 모든 이슈를 독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특검 추천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 각료, 주요 국가기관에 아직도 많이 숨어 있다"며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정치적 보복'이라면서 당론으로 반대를 채택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시와 한국탐소산업진흥원이 9일(현지시간)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를 방문, 탄소복합재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전주시, 탄소산업 유럽시장 외연 확장

우범기 시장, 폴란드서 협력 간담
탄소복합재 유럽 진출 협업 논의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과 전주산 탄소복합재의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 전주시가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와 협력 강화 등 외연 확장에 나섰다.

전주시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PKTK)를 방문해 안제이 추왈락(Andrzej Czulak) 협회장을 비롯한 클러스터 관계자, 막달레나 마워폴스키에 주국장 등과 함께 복합소재 및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럽을 순방 중인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관계자, 데크카본·비나텍·아이버스 등 전주 소재 탄소기업 대표, 폴란드 복합재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 간 기술 교류와 공동 사업 추진, 유럽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복합재 및 첨단소재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한-폴란드 기업 간 기술·제품 협력 가능성 △유럽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업 방안 등이 다뤄졌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 간 산학연 연계 확대를 통한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했다.

전주시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는 이 자리에서 양국의 소재·기술 역량을 융합해 실질적인 기술 협력은 물론, 정기적인 기술 세미나와 인재 교류 프로그램,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도 유럽 소재 강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대학·연구기관 간 국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글로벌 R&D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안제이 추왈락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 회장은 "기업뿐 아니라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창극 '심청' 세계화

8월 13일 개막…여름 축제로

대한민국 전통 판소리 축제인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025년 제24회를 맞아 국립극장 공동으로 개막공연 '심청'을 제작중이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10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24년의 명맥을 이어온 '전주세계소리축제' 전반에 대해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24주년을 맞이한 이번 소리축제는 작년에 이어 여름축제로 8월 13일~17일까지(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향의 메아리' 주제로 전 세계의 음악적 요소와 함께 개막공연 '심청'은 세계적 연출가와 국립극장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를 필두로, 판소리·클래식·대중음악·해외공연 등 61개 프로그램 73회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극장과 공동 제작해 소리축제에서 세계초연하게 되는 개막공연 창극 '심청'은 당대 유럽을 중심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오페라 연출가 요나 킴과 국립창극단의 만남으로 제작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이번 작품은 전통적인 심청전의 틀을 깨고 올림픽 정신의 다양성을 강조한 창조적 재해석으로 창극의 세계화를 시도한다.

/김영태 기자

익산시청 김태희 해머던지기 새 역사

10일 국제·전국대회 메달 수여식
본인 한국신기록 경신·金 획득
육상 오혜원, 1500m 금메달

또 한 번의 한국기록을 경신한 김태희(사진 우) 등 익산시청 소속 선수들이 한국 육상의 위상을 끌어올리며 지역에도 웃음을 안기고 있다.

익산시는 10일 시청에서 메달 수여식을 개최하고,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익산시청 육상팀의 땀과 노력을 치하했다.

이번 수여식은 이달 경북 예천에서 열린 '2025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와 '제53회 KBS배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축하하고, 익산의 위상을 드높인 성과를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육상팀 김태희 선수는 지난 7일 열린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여자 해머던지기 부문에서 64m70을 던지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기록은 김태희 선수 본인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유한 기존 한국신기록 64m14를 경신한 수치다.

김 선수는 지난 5일 KBS배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김 선수는 꾸준한 훈련과 실전 감각으로 한국 해머던지기의 새 역사를 장식하고 있다.

또한 육상팀 오혜원 선수는 KBS배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500m 부분에서 힘찬 레이스 끝에 금메달을 차지하며, 중장거리 부문에서도 익산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본격화

TF팀 출범 폐교재생 등 지역소멸 해법 제시도

전북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대는 10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남원 글로컬캠퍼스 추진본부(TFT) 출범식'을 열고, 캠퍼스 조성과 운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출범식은 서남대 폐교 부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남원 글로컬캠퍼스의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첫 단추로, 윤명숙 대외취업부총장이 총괄 추진본부장을 맡아 전체 사업을 진두지휘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윤명숙 추진본부장, 국경수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장과 글로컬캠퍼스에 설치되는 3개 신설학과를 이끌 겸임교수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방향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전북대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 부지를 재생하는 캠퍼스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서남대 폐교 이후 침체됐던 지역경제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이번 추진본부 출범은 그 실행을 위한 조직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글로컬커머스학과(100명/학년) △한국어학과(80명/학년) △K-엔터테인먼트학과(70명/학년) 등 외국인 유학생 전용 3개 학과가 설치돼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전북대는 장기적으로 연간 1,000명 이상의 유학생 유치할 계획이다.

유학생들은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거쳐 각 전공 중심의 실무 연계 교육을 받게 되며,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자 연장, 취업 연계(창업 포함), 주거 지원 등도 뒤따른다.

전북대는 현재 남원시와 협력해 서남대 부지 리모델링, 교육시설 확충, 행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단순한 분교나 유학생 수용 공간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육 생태계의 혁신적인 상생발전 모델"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업이 얼마나 잘 수행되느냐에 따라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남원 글로컬캠퍼스 추진본부는 이러한 변화를 실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실행조직"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 본부는 학과 운영과 유학생 정착을 포함한 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진안-남원-고창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전북특별법 2,155억 투입 생산·가공·연구개발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총3개 지구를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한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마련한 개념으로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을 집적화해 산업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고,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고시하는 3개 지구는 2025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29개 세부사업에 2,155억 원을 투자해 지구별로 맞춤형 농생명산업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60ha 부지에 대규모 창업단지와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 농생명 스마트팜의 허브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7ha)는 국내 유일의 홍삼특구를 기반으로 유통, 가공, 홍보체험관 등 시설을 집적화해 고부가가치 홍삼 산업을 선도한다.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ha)는 연중 안정적 김치 원료 공급, 스마트팜 기술 등을 포함한 김치 복합단지로 조성해 국가적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남원 스마트팜 지구는 퍼시픽투자운용사 등과의 협력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추진하고, 고창 김치지구는 대상, 나리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김치산업을 육성한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은 농생명산업의 첨단화, 기업연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저탄소 생산, ICT 융합 등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통해 24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고용 180명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농지전용 등 특례를 적용해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 및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해,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설명회와 지원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농생명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李 대통령, 장·차관 국민 추천제 시행

"국민 기대 부응 임명 진짜 일꾼 찾기 돌입"

대통령실은 10일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키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진짜 일꾼잡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 추천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공직자 및 정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이다. 장·차관, 처장·청장, 위원회 위원장 등 정무직과 정부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이다

참여방법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체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오픈초이스 앳 코리아 닷 KR에 쪽지나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 추천 절차는 △추천분야 선택 △본인인증 △추천접수 △정보 확인 △국가인재 DB 등록 △정부 주요직위 및 전문분야 추천의 6단계로 이뤄진다.

추천 분야는 △정무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카테고리로 나뉜다. 전문분야별로는 31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각 분야를 선택한 후 '나를 추천합니다'와 '다른 사람을 추천합니다'로 추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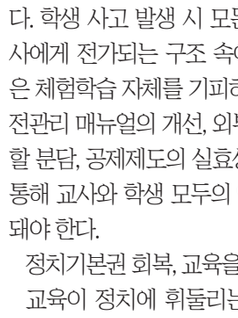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 다하겠다"며 "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 기자

새 정부에 바란다

오준영 "교육이 다시 교육이 되도록"

교육 본질 회복 기회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대한민국 교육이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교실은 돌봄과 행정, 복지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다. 교사는 점점 더 많은 비본질적 업무에 내몰리고, 아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저출생 위기, 교권 붕괴, 행정 과중, 교육 불신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지금, 새로운 국가 리더십은 무엇보다 '교육'을 바로세워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는 지금이야말로 교육을 다시 교육답게 만들 새로운 기회다.

저출생 대책, 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저출생의 악순환은 교육에서 시작되고,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학교,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에 치이는 교실, 신뢰할 수 없는 공교육 시스템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만든다. '국가 책임 돌봄'이라는 명목으로 학교가 복지의 장이 되고, 교사가 돌봄 인력이 되면서 교육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는 더 이상 학습 중심의 공간이 아닌, 다양한 사회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구조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된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다. 저출생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학교가 다시 교육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교실 붕괴 막는 교권 보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최근에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 개념이 불명확한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시키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적 판단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학생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 속에서, 교사들은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안전관리 매뉴얼의 개선, 외부 기관의 역할 분담, 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

정치기본권 회복, 교육을 위한 용기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이유는 교원이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출렁이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 유·초·중등 교원은 입법과 정책결정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후원조차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정책 수용의 객체로 전락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교수는 사직 없이 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교사는 교육감 선거에조차 출마하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가 교원이라는 이유로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교원이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어야 진짜 교육자치, 진짜 교육민주주의가 완성된다.

교실은 국가의 미래를 담는 그릇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정책의 출발이자 끝이다. 교사에게 희망을, 아이에게 미래를,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의 이름으로 교육이 다시 교육이 되는 그 시작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국 시도교총회장 협의회장 오준영

고창군 공고 제2025 - 1046호

「고창 상하~해리 도로시설개량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공고

「고창 상하 ~ 해리 도로시설개량공사」를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11.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고창 상하 ~ 해리 도로시설개량공사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 해리면 왕촌리 일원

3. 사업규모 : 연장 L=5.5km
폭원 B=11.5(양방향2차로)
설계속도 V=60km/h

4. 시 행 자 성명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붙임과 같음

6.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9년 12월

7. 열람기간 : 2025. 6. 11. ~ 2025. 6. 26.(15일간)

8. 열람장소 :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고창군 건설과

9. 제출장소 : 고창군 건설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1), 고창군 건설과(☎063-560-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환경청, 여름철 녹조대응 '비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용담호·옥정호 녹조 저감
지자체와 협력 강화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전북권 내 주요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와 옥정호 여름철 녹조발생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7~8월은 평년 대비 기온이 더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예년에 비해 녹조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전북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녹조영향 저감을 위해 '사전예방', '사후대응', '먹는물 안전' 분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전북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야적퇴비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원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2월부터 용담호와 옥정호 상류의 야적퇴비를 전수조사해 142개소를 확인하고 장마철 이전까지 소유주로 해금 수거 또는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야적퇴비는 지자체 관계자 등이 임시로 비닐덮개를 설치하는 등 녹조 영양물질의 수계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 상류로 유입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추진하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41개소에 대해 운영·관리, 무단방류 여부 등을 점검해 8건의 위반현황을 적발했다.

이와 더불어 용담호 및 옥정호 상류 인근에 위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3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10개소 등도 6월 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후대응' 분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원 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저감설비 운영을 강화한다.

용담호는 취수탑 주변 물순환장치(7기), 수면포기기(5기)를 추가 설치하고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유입하천(진안천)에'저온 플라즈마*'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옥정호는 수면포기기 등 녹조저감설비를 6월에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칠보발전방류구 부근은 조류차단막 길이를 연장함과 동시에 수면포기기 6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먹는물 안전' 분야로 전북지방환경청과 유역수도지원센터 합동으로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각 정수처리공정과 비상대응체계 등 취·정수장에서의 녹조대응 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조류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조류독소, 냄새물질의 수질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녹조가 한번 발생하면 사라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집중적인 녹조관리로 안전한 취수여건을 유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와 옥정호에 대해 본격적인 녹조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983억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민생·안전·복지 집중 지원
올림픽 유치 등 현안 반영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신속한 민생 회복, 시민 안전 강화, 사회적 약자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총 98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2조 7042억 원) 대비 983억 원(3.64%)이 증가한 총 2조 8025억 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주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 등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20억 원 △ 공공근로사업 추진 6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2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1.4억 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교통 분야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편성된 주요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49억 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3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2억 원△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10억 원 등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6억 원 △월평 재해위험지역 정비 15억 원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5억 원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10억 원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68억 원을 반영했다.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38억 원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18억 원 △완주·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 4억 원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구축 20억 원 등도 책정했다.

또한, 경제 침체 속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아동, 노인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추가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65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3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1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원 △생계급여 9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6억 원 △어린이 급·간식비 지원 4.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2024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활용했으며,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올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과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2년 연속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예산과 꼭 필요한 현안 사업만을 반영했다"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예산안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전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함께&특화라면' 1호 나눔행사 열려

'라면' 매개 위기가구 발굴
위로·공감 전달 시간

전북지역 고속도로휴게소와 전주시사회복지관협회가 1인 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시 특화사업인 '전주함께라면'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시와 전북휴게소협의회(회장 김형구), 전주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10일 전주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호남고속도로 정읍녹두장군휴게소(순천·천안방향) 재능나눔봉사단과 '라면'을 매개로 1인 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함께&특화라면'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시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북휴게소협의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천한 것으로, 전북권 고속도로 휴게소 재능나눔봉사단과 전주시 사회복지관이 연계해 시민과 함께한 첫 번째 '라면데이' 나눔 행사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북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실제 판매중인 특화라면(귀리쌀 누룽지탕면, 얼큰콩나물 해물라면)을 고속도로휴게소 조리봉사단이 직접 조리해 선보였다.

또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정읍녹두장군휴게소 관계자, 아동, 장애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라면 한 그릇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공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함께라면'과 고속도로휴게소의 특화라면이 결합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전주함께&특화라면' 나눔 행사는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전주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휴게소협의회(정읍녹두장군휴게소) 관계자는 "전주시의 의미 있는 사회공헌 모델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함께&특화라면' 나눔행사는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우리 지역을 특산물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서울국제관광전서 최우수홍보상 수상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서 전북 7개 시·군과 함께 운영한 공동홍보관이 '최우수홍보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남원시와 익산시, 김제시, 순창군, 무주군, 완주군, 부안군 등 도내 7개 시군과 함께 운영한 '관광거점도시 전주 시군연계 공동홍보관'을 통해 개방형 부스 구성과 시군 연계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선보였다.

특히 각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엮은 통합 전시 구성과 SNS 이벤트, 다국어 홍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참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 '전주·완주 시티투어'와 'MYMY TRAVEL' 등 시군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상담도 활발히 이뤄졌다.

여기에 '전주'를 주축으로 한 통합형 홍보 전략은 관람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했고, 수도권 여행사 대상 B2B 상담을 통해 향후 관광객 유치 기반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매력을 수도권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주는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로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체류형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의회, 구·신도심 활성화 연구 착수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라이징연구회'(회장 최서연)는 10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구도심과 신도심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서연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추진 방향과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연구는 전주 구·신도심 주요 상권의 실태를 분석하고, 상권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기반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서연 의원은 "상가 공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위기와 직결된 현안"이라며 "지역상권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는 향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예산 활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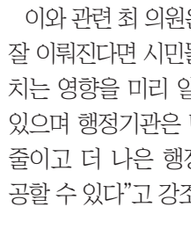
한편,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는 전주시 지역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 연구 단체로, 회장 최서연 의원을 비롯해 최명권 의원(감사), 신유정 의원(사무국장)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의회 중계석

최명권 시의원 "예고없는 도로 공사 시민 분통"

사전예고 강화 대책 촉구


최명권 시의원

전주시의회 최명권(송천1동) 의원은 10일 전주시내 도로 공사가 사전예고 없이 시행되면서 출퇴근 시간 때 차량운행이 정체되면서 시민들의 원망이 자자하다며 사전예고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 의원은 최근 전주시는 도로를 비롯해 도로 밑에 매설된 상하수관로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굴착 및 공사가 빈번히 이뤄지면서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등 각종 공사가 예고 없이 시작되거나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예기치 못한 통행 제한, 우회로 부족, 소음 및 분진, 심지어는 응급 상황에서의 동선 차질까지,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사전 안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현재는 공사 구간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도로 공사를 안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뒤섞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운전하며 지나가는 대다수 시민들은 시선을 돌리기 어려워 현수막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지 않는 시민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전주시 누리집에는 '주요 사업(공사) 알림방'이라는 게시판이 마련돼 있음에도 공사 알림을 위한 목적으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 마지막으로 게시된 공사 안내는 2023년의 '진북터널 방음벽 설치공사'이며, 이후에는 공사 관련 알림이 아닌, 다른 사업의 모집, 신청, 운영 안내만이 가끔씩 게시되고 있는 등 시민에게 공사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전예고가 잘 이뤄진다면 시민들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민원과 불신을 줄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한승우 시의원, 호랑가시나무 관리대책 마련 촉구

난대성 활엽수 연구 필요

한승우 시의원

전주시의회 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 의원은 10일 전주시 완산칠봉에 생육하는 호랑가시나무를 비롯한 난대성 상록활엽수 등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년여간 전주 완산칠봉(해발184.2m)을 관찰한 결과,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매우 폭넓고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랑가시나무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가와 섬 지역에 주로 생육하며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어청도 등이 북방한계선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에서는 1962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 군락을 천연기념물 122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한 의원이 관찰한 결과, 전주시 완산칠봉에 생육하는 호랑가시나무는 1~2년생부터 20여 년간 자란 것으로 보이는 나무까지 100여 개체가 완산칠봉 전역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완산칠봉에는 호랑가시나무뿐만이 아니라 구골나무, 꽝꽝나무, 식나무, 광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매우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었으며, 굴거리나무 한개체도 생육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전주시 완산칠봉에서 일시적 또는 인위적으로 생육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09년 우리나라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북방한계선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 호랑가시나무의 경우, 군산의 어청도 등 주로 섬과 전라남도 남부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 관측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의 기후변화는 1920년대(1920~29) 평균기온이 11.93℃에서 2010년대(2010~19)에 13.77℃로 평균기온이 약 1.8℃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전주 완산칠봉에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활엽수가 다수 생육하는 원인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탄소중립 실천 반려식물 나눔

전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일환으로 새활용 플라스틱 화분에 심은 반려식물을 소외된 이웃들과 나눔봉사에 나섰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10일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센터장 장영의)와 함께 작은병뚜껑을 활용해 재탄생한 미니화분에 다육식물을 정성껏 심어 1인 가구와 장애인시설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시 지구를 새롭게 RE:EARTH에 피는 꽃'의 일환으로, 센터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 중 작은플라스틱(병뚜껑)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인 병뚜껑을 활용해 화분 키트를 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렇게 제작된 화분에 반려 식물을 심어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게 된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장영의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은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화분으로 소외된 이웃과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면서 "앞으로도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새만금에 해양기자재 생산거점 들어선다

새만금청, 명일잭업해양 협약
국가산단 1공구 310억 투자
잭업바지선 등 제조시설 구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지난 10일 명일잭업해양(주)과 '해상작업용 잭업바지선 및 해양 기자재 생산시설' 건립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문용 명일잭업해양(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산 강소기업인 명일잭업해양㈜은 1998년 설립되어 해상작업용 잭업바지선 및 해상구조물 제작에 특화된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꾸준한 연구개발(R&D)과 생산 능력 강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해양기자재 전문 기업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명일잭업해양㈜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공구 내 약 1만평 부지에 총 310억 원을 투자해 잭업바지선 및 해양산업 관련 기자재 제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명일잭업해양㈜의 투자는 새만금이 해양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풍력·조선기자재 등 해양 에너지 융복합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용 명일잭업해양㈜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해상풍력 및 해양기자재 산업의 핵심 기반을 새만금산업단지에 구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술력과 공급망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와 지난 10일 명일잭업해양(주)과 '해상작업용 잭업바지선 및 해양 기자재 생산시설'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새만금청>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드론 영상 하천 DB 구축
하천정보 접근성 향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하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팀별 벤치마킹(시즌1)'에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추진한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에는 도내 458개, 총 2,810㎞에 달하는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및 시설 정보와 시지역 162개, 974㎞의 지방하천의 드론파노라마 영상 등의 지방하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웹지도 기반의 '공간정보분석시스템'과 연계해 제공된다.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은 지번 검색만으로 하천기본계획 및 정비 현황 등의 하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천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도민의 민원 처리 간소화 및 정확도 향상으로 도정의 신뢰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천범람, 제방붕괴와 같은 재해 예방과 치수 정책 수립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19일 도·시군 하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그동안 지방하천에 대한 현황, 성과, 편입토지 등 방대한 자료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천 정보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하고 정확한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참여

올해 200명 청년 선정 참여
원금에 은행 이자 추가 혜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관련기사 8면>

이 사업은 순창군이 선정한 만 18세~49세의 근로청년들이 종자통장에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순창군에서 납입금의 두 배를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정책 사업으로 청년들의 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23년부터 전북은행이 단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통장 개설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 594명에 이어 올해는 200명의 청년들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금액은 월 15만원으로 가입 시 순창군에서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2년간 월 15만원씩 적립했을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순창군 지원금액 72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총 원금 1,080만 원과 추가로 전북은행 이자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순창군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사진=전북은행>

전북농협, 라이스쇼서 전북상품 홍보

킨텍스 쌀가공식품대전 참가
전북지역 쌀 가공제품 선봬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공덕농협(조합장 문용수)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쌀가공식품산업대전(RICE SHOW 2025)'에 참가해 전북관내 농협 쌀가공식품을 홍보한다.

라이스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쌀가공식품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세계가 주목하는 선물, 한국 쌀 가공식품'을 주제로 국내외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의 우수성과 다양한 가공식품 트렌드를 소개한다.

전북농협은 지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힘써왔으며, 이번 라이스쇼 참가를 통해 전북 쌀로 만든 떡국떡, 찹쌀떡, 누룽지, 떡볶이, 즉석밥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전북농협은 지난해 'K-라이스페스타' 에서 지역본부 경진대회 1위를 수상하는 등 전북 쌀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이는 전북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소비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여름철 폭우 피해 대비 당부

재난 안전 대비 점검 회의
"농작물·시설 사전 관리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6월 중순 이후 장마전선 영향에 의한 집중호우와 폭우를 동반한 돌풍 등의 예보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 대비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청장은 10일 오전 '여름철 재난·안전 대비 점검 회의'를 열고,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비롯해 풍수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현황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기상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간 신속한 소통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기술지원 방안 등을 재차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장마 기간 중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크고, 국지성 폭우가 잦을 것에 대비해 기존에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던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과 현장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가에서는 작물 과습, 농경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퇴적물 등을 제거하고, 배수펌프 작동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충해 확산 위험이 크므로, 비가 그친 뒤 바로 방제할 수 있도록 작물에 맞는 살균제·살충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과수 탄저병 예방을 위해 장마 시작 전 살균 보호제를 살포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살포한다.

3~4일 연속으로 비가 오면 비가 그친 뒤 바로 예방 및 치료 약제를 뿌린다.

축사 지붕과 창고 벽체를 살펴 비가 새지 않도록 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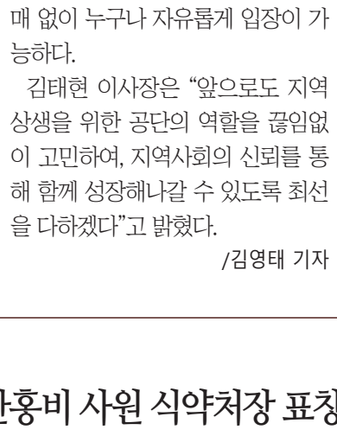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내외부 전선 피복 상태를 점검한 뒤 필요하면 전선을 교체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감아 보완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플러그는 뽑는다.

장마철에는 사료가 젖지 않게 보관하고, 사료 포대는 방수포나 비닐 덮개로 감싼다. 축사는 장마 전 소독을 완료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 행사

전북 정착 10년 성과 조명
기념식·음악회 지역민 소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1일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행사'를 공단 본부(행복연금관 온누리홀)에서 개최한다.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행사' 행사는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지역사회 정착 위한 노력과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공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도약의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다.

본 행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식,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 대상 '미래세대 소통 클래스(알기쉬운 연금제도 및 청소년 재무설계)' 지역주민 위한 기념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또 기념식은 국민연금 명예홍보대사 KBS 이승현 아나운서 사회로 시작되며 '기념식수, 전북 이전 정착 및 지역발전 기여 유공자 표창, 전북어린이교향악단 축하공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다짐하는 지역상생 결의문 선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북 이전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아울러 미래세대 소통 클래스는 알기 쉬운 국민연금제도, 청소년 재무설계 등 국민연금 미래가입자의 재무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익산 삼기중학교 전교생 참여)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강좌로 마련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기념 음악회에서는 감성 보컬듀오 길구봉구를 비롯해 전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페탈예술기획, 고니밴드, 카발레타가 무대에 오른다.

기념 음악회는 많은 지역주민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사전예매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지역사회의 신뢰를 통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물류관리과 한홍비 사원 식약처장 표창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수상
의료기기 발전·안전 관리 공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물류관리과 의공자산관리팀 한홍비 사원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 보건 향상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표창 수상은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진행됐다.

한 사원은 이상 사례 보고 활성화와 의료기기 호환성 검증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한홍비 사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대병원 물류관리과 의공자산관리팀에서 의공사로 근무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전문가다.

또 그는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판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험 요인 분석에 힘쓰며 공공의료 안전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 의약품주입기와 I.V Set 간 호환성 검증, CRRT EMR 연동 등을 통해 환자 안전성 향상과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방향을 제시해왔다.

한홍비 사원은 "의료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과 항상 소통하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했고, 더 나아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해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청정축산 환경대상' 우수 4농가 시상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제8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전북예선 우수 농가로 무진장축협 장수흑염소농장(대표 박병진, 흑염소), 남원축협 서울농장(대표 박노창, 산란계), 동진강낙농축협 상하금성목장(대표 오금열, 젖소), 순정축협 코리아농장(대표 오동균, 한우)을 선정해 시상했다.

'청정축산환경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적인 축산환경 개선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우수 축산 농가를 선정, 시상하는 대회이며 10일 진행된 시상식 수상농가는 전북농협 본부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게 되고 하반기에 열릴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본선에 전북지역 대표로 선정됐다.

그동안 전북에서 제2회 초원흑돼지농장(우수상), 제3회 샘골농장 (우수상), 제4회 송월농장(특별상) 및 무항농장(우수상), 제5회 태주농장(최우수상), 제6회 영풍농장(특별상) 및 희망농장(우수상), 제7회 무주반딧불복지농장(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일반고 지난해 669명 학업중단

4년 전 대비 1.63배 증가
내신 부담·대입 개편 영향

전북 지역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669명으로 4년 전 대비 1.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종로학원이 2025년 학교알리미 공시 일반고 학업 중단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북 지역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669명이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이자 2020년 409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약 1.63배 증가한 수치다.

종로학원은 최근 학교 폭력 심의 건수 증가 등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 증가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늘었지만, 내신이 불리해져 검정고시로 수능을 준비하려는 학생이 증가한 것과 맞물린 상황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학원 측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상위 10%인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상위권대 입학 불이익을 피하려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일반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내신이 불리해진 학생들에 대비해 수능 준비를 위한 대입 프로그램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대입 개편에 따라 현재보다 학업중단자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과 관계자는 "입시 제도 변화에 따라 학업 중단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라며 "지역 교육열에 따라 학업 중단율의 차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중 부적응 학생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외 유학을 가는 학생과 대안 교육으로 전환하는 학생 수 비율이 60% 이상이다"며 "학업 중단 학생을 막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일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만8498명으로 2020년 9504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고, 지방권에서는 광주가 5년새 2.56배 증가했고, 경남과 부산이 1.82배, 경북이 1.72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민 기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미래도시의 길 찾는다

13~14일 전주 미래문화포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주시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축적된 전주만의 문화력을 바탕으로 미래문화 선도도시의 길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전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지역문화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5 전주 미래문화포럼'이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논의의 장이다.

이번 포럼의 첫째 날에는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가 '대전환시대, 문화로 미래도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모 교수는 이 자리에서 문화도시 정책의 전환기 속에서 문화의 역할과 도시의 미래에 대해 철학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공동주최 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전주의 문화도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시선이 교차하는 이 토론이 전주의 미래문화도시 비전을 더욱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미래문화포럼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특별세션도 마련된다.

특별세션에는 먼저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이어 김병오 전주대학교 교수가 전주의 문화 자산과 기술 융합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발표를 진행한다. 또, 토론에는 김남규 전북대학교 특임교수와 김은정 전북일보 콘텐츠기획실장,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전완식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전주의 문화자산이 새로운 변주를 통해 어떠한 미래상을 그려낼 수 있을지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둘째 날에는 각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세션과 신진세션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학술세션에서는 '문화로 미래를 그리다'라는 공통 주제 아래 △하이퍼로컬과 글로컬의 공진화(한국지역문화학회) △전통과 혁신(한국문화경제학회) △지역 예술생태계의 오늘과 내일(한국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등 각 학회별로 세부 주제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포럼이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전주의 문화적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문화와 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의 문화혁신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는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현재를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그 출발점이며,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관련 학회와 석학들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전주의 비전이 학문적 깊이와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갖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우석대 '전북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 선정

총 30억 4900만 원 확보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5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전북지역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3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 사업으로, 지역 수요와 대학 특성화, 시군별 현안 해결 등 세 분야의 과제를 공모해 선정했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사업에서 도 수요 과제로 △해외 유학생 유치 지원 △지역 자원 연계 늘봄학교 지원 △지역 인재육성사업 등 3건, 대학 특성화 과제로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 융합인재 양성 △DnA 레드바이오 융합 혁신인재 양성 △전북 특화 미식관광 혁신전문인재 양성 등 3건이 선정됐다.

또한 시군 현안 해결 과제로는 △전주시 1건 △정읍시 2건 △남원시 2건 △완주군 1건 △장수군 1건△부안군 1건 등 총 8건이 포함됐다.

이번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과 RISE사업을 합산하면 우석대학교는 향후 5년간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업 연계형 혁신 플랫폼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노준 총장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 산업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호응'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역 미디어 전문기관과 연계해 초등학생들의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한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익산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기반으로 창의적 활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위해 지역 미디어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해 7월까지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기자단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1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2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미디어교육 전문강사진이 학급 담임교사와 함께 프로젝트 수업 형태로 총 10차시에 걸쳐 진행된다.

어린이 기자단은 신문의 역할, 기사의 종류와 작성 방법, 인터뷰 실습 및 기사 작성, 기사 편집 등 신문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은 라디오 방송의 구성과 기획부터 프로그램 제작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특히 미디어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신문과 라디오 방송의 뉴스 기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전주오송초등학교 5학년 유지아 학생은 "요즘은 라디오 DJ 혼자서 방송 작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등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많다"며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 활동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것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올림픽 유치기원, 제1회 세계요가의날 축제

14일 완산생활체육공원 요가말라 프로젝트

오는 14일 2036 전주올림픽 유치기원 전주시요가협회(회장 최성순) 주관 제1회 세계요가의날 요가말라 프로젝트 축제가 전주시 중인동 소재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특히 세계요가의날 요가말라프로젝트 축제에서는 전국에서 실력있는 요가 강사 13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요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요가협회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체육회가 주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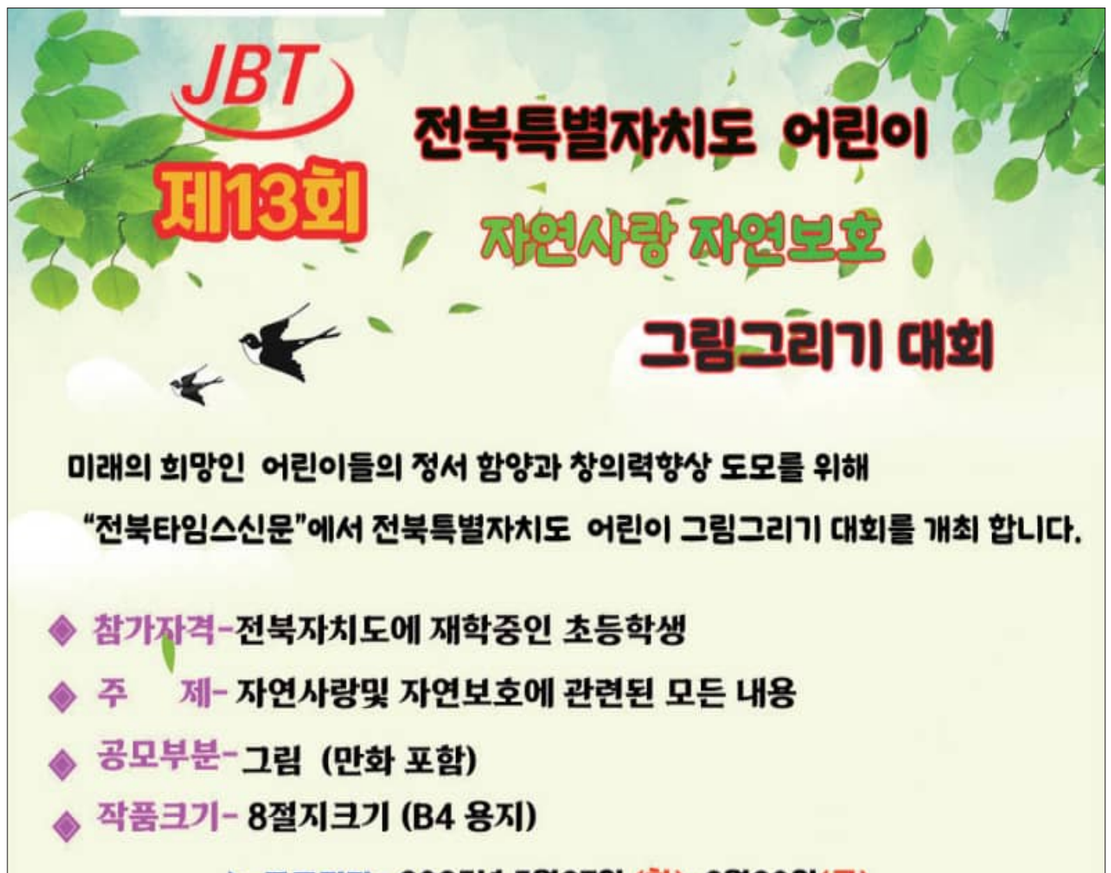
참가자는 요가동호인 및 전북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500여명 정도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지만 전액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식전행사로 오전 9시 요가 시범단의 공연에 이어 9시 30분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요가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인사이드플로우팀과 함께 빈야사요가 몸풀기에 이어, 요가말라 프로젝트가 정오 12시30분까지 강사들의 지도로 진행된다.

한편 협회측은 14일(토) 오전 일기예보상 우천시에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정읍시, 특별단속 실시

정읍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과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단지·농공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다량폐수 배출업소, 폐수재이용·위탁처리업소 등이다.

시는 단속 전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배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하천 인근의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해 수질환경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번 운영과 함께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영해 시민 제보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그린바이오 중심지로 도약하는 정읍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기반 조성 본격화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아파트형 스마트 공장) 조감도 <사진=정읍시>

정읍시가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미생물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기 위해 공유인프라 기반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전국 60여개 기업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아파트형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미생물산업 관련 기업체 60여 곳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는 '첨단분석시스템 → GMP 생산동 → 공유인프라'로 이어지는 시설 구축의 진행 현황과 장비 배치 계획, 기업 입주 절차, 지원정책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을 시찰하며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신정동 1508-1 일원에 연면적 8546㎡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형 스마트 공장은 미생물산업 기업의 연구·생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3년 2월, 미생물분야 전국 유일의 그린바이오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앞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GMP 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을 구축, 미생물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총 99억원을 들여 자동화·고속화·표준화된 바이오파운드리 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들을 연계해 총 40실의 기업 입주 공간과 액상·고상 미생물 제품화 시스템을 갖춘 공동활용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저장·유통·상용화까지 미생물산업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25년 친절 민원공무원 선발

체육진흥과 박상기 주무관 등

군산시가 2025년 상반기 친절 민원 담당자를 선발해 시상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 상반기 친절공무원은 24년 11월부터 25년 4월까지 기간에 추천받은 총 33명 중 △체육진흥과 박상기 주무관 △수송동 홍세미 주무관 △교통행정과 김호현 주무관이다.

먼저 체육진흥과 박상기 주무관은 대야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운영업무를 담당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친절하고 세심한 태도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체육센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송동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홍세미 주무관의 경우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신청과정을 끝까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공직사회 친절행정 실현에 기여했다.

교통행정과 김호현 주무관은 출퇴근길 및 야간, 휴일에도 주차 질서 계도를 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민원인의 거센 항의에도 친절하게 응대하며 민원을 최소화해 군산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한 공로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9일 시상식을 열어 친절공무원 3명에게 표창장과 군산사랑상품권(20만원) 수여와 함께 '김영민 부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민원 처리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명산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한마당

전통시장의 재도약과 지역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축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오는 12일 오후 2시, 군산 명산시장 주차장 내 특설무대에서 화려한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와 JTV전주방송이 주최·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후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기획된 이번 가요제는 상인과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사회는 시장가요제의 터줏대감 개그맨 황기순이 맡아 유쾌한 분위기를 더하며, 유지나, 서지오, 피터펀, 김태욱, 금보리 등 초청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이어진다. 또한, 본선 무대에는 예심을 통과한 10팀의 본선 진출자가 노래 실력을 겨루며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요제 예선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현장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군산 명산시장 상인회를 통해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청렴도 향상 2차 추진협의회

기관장 주도 청렴 실천 활동

군산시는 제2차 '군산시 청렴도 향상 추진협의회(위원장 강임준, 이하 추진협의회)'를 열어 '2025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대한 공유 및 개선전략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시장이 주재하는 추진협의회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을 총괄하며, 부시장 주재 실무추진단이 협의회에서 나온 시책 추진 및 이행점검을 전담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청렴 정책이 계획부터 실행, 점검의 유기적 연결 구조로 순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군산시는 올해 전략 과제 중 하나인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 군산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이미 지난 3, 4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부패 취약 분야 진단 분석을 통한 2025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우선 2025년 중점 개선전략의 하나인 보조금 분야 청렴도 개선을 위해, 6~7월에 군산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70%를 차지하는 농업·문화관광·복지사업 담당 국별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불만 사항 청취 및 실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파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조금 사업 인계인수서 작성, 예산목별 집행가이드 제작과 대상자 교육을 한다.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희망보직제 점수제 시행과 반영률 공개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서 전보 및 인사 고충 심사제 방안 운영도 이야기됐다. 전보 제한 직원 중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보를 실시하는 방안과 인사제도 설명회 관련 제안도 나왔다.

시는 1, 2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청렴 문화의 대내외 전파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군산시 공무원노조, 군산시 공무직노조, 시민단체 등과 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 조성과 노동조합과의 건전한 조직문화 협약을 통한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업무지시 행동규범 등'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방안도 함께 이야기됐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청년정책 숏폼 영상 공모전

'청년의 삶, 정책과 마주하다' 주제

군산시가 청년들의 시선으로 청년정책 참여 경험을 담은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2025년 군산시 청년정책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삶, 정책과 마주하다"를 주제로, 군산시 청년정책에 참여했던 경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사례를 1분 이내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상에는 청년들이 겪은 변화, 정책 참여 동기, 정책과의 만남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으며, 브이로그(VLOG)·인터뷰·상황극 등 다양한 숏폼 형식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군산시 청년정책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 중인 18세~39세 이하 청년(참여 당시 연령 기준 포함)이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1건 이내에서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작은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7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7월 4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rhtks453@korea.kr)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 시한까지 도착 완료돼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시에는 작품의 영상(USB)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폭염 대응 강화…시민 안전 최우선

9월 말까지 폭염대책 기간 3개팀 특별팀(TF) 가동

익산시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응 특별팀(TF)'을 운영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폭염 대응 특별팀은 △총괄상황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3개반 52명으로 구성됐다. 특별팀은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폭염 대응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대응도 진행 중이다. 보행자가 많은 주요 사거리에는 스마트 그늘막 21개 포함해 총 173개의 그늘막이 가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경로당과 금융기관 등 냉방기기가 마련된 무더위 쉼터 501개소도 상시 개방 중이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무더위 쉼터 시간을 연장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염경보 시에는 도로 위 살수차를 운영해 도심에 열기가 갇히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 얼음과 생수를 비치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힘쓴다. 이 과정에서 재난에 취약한 이웃을 돕는 '재난도우미'가 큰 역할을 한다.

재난도우미는 주민을 잘 아는 이·통장과 생활지원사, 자율방재단, 방문건강관리간호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안부 전화와 방문 관리를 통해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하고, 현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폭염이 심할 경우 야외 작업 자제 및 중단을 권고해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로컬푸드 농산물 신뢰도 UP

유통단계까지 농약 잔류 확인

정읍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유통단계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하며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나섰다.

시는 현재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연간 약 1300건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해 왔지만, 유통 중 외부 환경이나 부주의에 따른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검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상추, 블루베리, 깻잎, 양파, 고추, 대파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총 463종의 살충제·제초제 등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즉시 폐기 조치되며, 해당 생산 농가에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이 별도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이중 안전망이 구축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립도서관, 부커상 후보 정보라 작가 강연

부커상 후보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소설가 정보라가 정읍을 찾아 시민들과 문학 속 환상의 세계를 나눈다.

정읍시는 '저주토끼'의 저자이자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소설가 정보라 작가가 오는 14일 오후, 신태인도서관에서 강연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청 강연은 한국 신화와 전설 속 '용'을 주제로, 전통과 상상이 만나 이루어지는 환상 문학의 세계를 시민들과 함께 탐색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 아동 지원 '맞손'

'익산시와 함께 돌봄' 사업 민관 협력 통합 지원 체계 강화

익산시가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손잡고 민관 협력 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익산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가족돌봄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돌봄사업인 '익산시와 함께 돌봄'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 책임을 지게 된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만 24세 이하인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내 초·중·고교에서 추천받아 가정방문 등을 거쳐 총 1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초록우산과 선정된 대상자에게 1차로 생계비, 문화체험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욕구 조사를 통해 심리·정서·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가 사업비 2,500여만 원을 익산시에 전달하며 돌봄사업의 시작을 함께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호우 대비 농배수로 영농폐기물 집중 정비

익산시가 여름철 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강 주변 농배수로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침수가 발생한 망성면 화산리, 용안면 법성리, 용동면 구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인접 농배수로의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까지 비닐, 차광막 등 수거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아울러 영농자재가 농배수로를 막아 침수를 유발하지 않도록 농가에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시는 오는 12일 용안면을 시작으로 조사 결과 파악된 영농폐기물 70여 톤을 3일에 걸쳐 수거할 예정이다. 농업인은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강·대조천·산북천 주변 농배수로를 지속해서 점검해, 비닐하우스 주변에 무단 방치된 농자재나 쓰레기들이 물길을 막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추경 1조 2,314억원 편성

기정예산 대비 661억 증가
시민안전·생활편의 중점
26일 최종 확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0일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1회추경 의결 이후 확정 및 변경된 국·도비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1억원(5.67%) 증가한 1조 2,31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99억원(5.62%)이 증가한 1조 1,262억원, 특별회계는 62억원(6.21%)이 증가한 1,05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김제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금 40억원 △살처분 보상금 135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원 △출산장려금 11억원 △인구정책 지원금 10억원 △지방투자기업 지원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선제적인 재난 대비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33억원 △통학로 지중화 도로복구사업 5억원 △우리동네 풍수해 사업 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5억원 등 시민안전 관련 예산도 꼼꼼히 반영했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6억원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16억원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15억원 △만경도서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12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6억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6억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4억원 등 시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반영했다.

제2회 추경안은 김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수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성료

선수 등 2백여명 참가

'2025 고창군수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10일 고창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에서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주최, 고창군장애인골프협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김진식 고창군장애인골프협회장, 박현규 고창파크골프협회장, 200여명의 장애인 선수와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화합을 다졌다.

경기는 장애인 그룹과 비장애인 그룹이 합쳐진 개인전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각각 팀으로된 팀전 경쟁경기로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고창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새만금 지평선 마라톤대회' 7월 31일까지 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의 대표적 스포츠 행사인 '제24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는 10월 3일 김제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추석연휴 및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마라톤대회를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지평선 달리GO, GO향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제24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마라톤대회는 시가 주최하고 김제스포츠클럽이 주관하며, 대회는 3개 부문이며 참가비는 하프, 10km 4만원, 5km 2만원, 선착순으로 5,000명(5km 2,000명, 10km 2,000명, 하프 1,0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제24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홈페이지(http://www.gimjesm.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김제스포츠클럽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 13개국 출전 성황

5~8일 부안 격포항 일원
부안 해양 레저 도시 기여

'제10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가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부안 격포항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사진=부안군>

'제10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가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부안 격포항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킬보트에서 Open, J24, J70, Fareast28과 딩기 WingFoil Open부, 장년부, 여자부 등 총 2개 종목 7개 부문으로 구성돼 치러졌으며, 아시아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러시아 등 세계 13개국에서 요트 30여척과 Wing Foil 60여 팀, 총 24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해상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올해는 대회 10주년을 맞아, 향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가능성이 높은 WingFoil 종목을 처음으로 신설해 큰 관심을 끌었다. 3개 부문에 60여 팀이 출전해 뜨거운 경쟁을 벌였으며, 대회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은 탁 트인 해안선과 안정적인 기상 조건,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요트 경기 장소로서의 면모를 입증했다.

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안군이 해양레저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최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11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총 16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등이 예정돼 있다.

첫날인 1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한 뒤 소회의실로 이동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할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이후 1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김제시 주요 시책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제언(최승선 의원)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 촉구(김승일 의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백현 의장은 "지난 6월 3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날이었다"라며 "김제시의회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갯벌축제, 13~15일 만돌갯벌서 열린다

갯벌체험·장어 맨손잡기
경험·프로그램 풍성

고창군이 오는 13~15일 심원면 만돌갯벌에서 '세계가 인정한 갯벌, 고창에서 즐기자'를 주제로 '2025 고창갯벌축제'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청정 고창갯벌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축제는 400여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했으며, '갯벌지킴이 건강걷기', '바람공원 힐링요가', '갯벌 K-POP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축제에는 바지락과 동죽을 캐는 '갯벌체험 활동'과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를 맨손으로 잡는 '미끌미끌 풍천장어 맨손잡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우튀김, 꼬막무침, 꼬막비빔밥 등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수산물 특화 먹거리 코너가 준비돼 있으며, 고창갯벌 홍보관에서는 갯벌의 생태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가 진행된다.

갯벌의 신비로움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2025 고창갯벌축제'는 여름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충 고창갯벌축제추진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만돌갯벌축제장에서 청정해안과 친환경 먹거리를 마음껏 느끼며 즐거운 체험, 신나는 추억을 담아 갈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10종·30항목 무료검진

고창군이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 건강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돼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과 계절 근로 협약(MOU)을 맺고 농촌 인력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검진 대상은 고창군 MOU 체결 국가 주민(1595명)과 결혼이민자 친인척(774명)이다. 검진을 희망하는 농가는 고창군 보건소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검진이 가능하다.

검진내용은 10종 30항목으로, △기본검사 5항목(문진, 혈압, 신장, 인바디, 흉부 X-선), △혈액검사 7종 22항목(간기능 및 신장검사, B형간염 검사 등), △소변검사 2항목(요단백, 요당)과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우울증 검사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농가주를 통해 보건소나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를 한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이 일자리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 10일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과 임원 선임(안) 승인의 건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학재단은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지역 인재 육성에 관심과 열정을 지닌 역량있는 임원을 공개 모집하고 이번 이사회 심의를 통해 이사 7명과 감사 1명을 선임했다

또, 지평선학당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선발 대상을 기존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이번 하반기부터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강생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학습 동기 형성과 진로 탐색이 빨라지고 있는 교육 환경을 반영한 결정으로 조기 학습 습관 정립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이사장은 "이번 선임된 임원들과 함께 더욱 폭넓은 장학사업을 통해 김제시를 빛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대대적 공간혁신 재개관

첫 준공 30년만 리모델링
복합 지식 문화공간 기대

김제시립도서관이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개관식을 가졌다.

10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정성주 김제시장과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시민들이 함께 자리해 재개관식을 축하했다.

재개관식에 앞서 진행된 식전 행사에서는 퓨전국악 '홍지형의 환유'팀의 공연과 '검산초등학교 라온소리'의 중창이 펼쳐졌다.

또, 테이프 커팅에 앞서 대형 LED 화면을 통해 김제시립도서관의 재개관을 알리는, 책과 빛을 테마로 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부대행사로는 마술공연, 페이스페인팅 등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시립도서관은 지난 1995년 12월 첫 개관 이후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 기초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전단벽 설치 등 공사를 통해 내진 보강을 실시했으며, 1, 2층은 비내력벽을 허물고 실별 출입문을 없애 개방형 구조로 대대적인 공간 혁신을 이뤄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리모델링 기간 참고 기다려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김제시립도서관이 문화 · 여가 · 소통의 복합 지식 문화공간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도배실무교육과정 성공적 운영

일자리 창출·사회 환원 실현

부안군 평생교육이 주민의 실질적 자립을 돕고, 배움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도배실무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모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상반기(4월~6월) 동안 총 23회차, 84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도배 기초이론부터 실전 기술까지 아우르는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청우평생학습관과 청우공방 실습장에서 진행됐으며, 부안군민 중 취업 준비자 및 재취업 희망자 10명이 참여해 현장중심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며 실무적응 능력을 향상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마지막 회차에서는 도배 실습을 지역내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개선 활동과 연계해 학습자들이 배운 기술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뜻깊은 경험을 쌓았다.

이는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배움이 곧 나눔이 되는 평생학습의 선순환 구조가 현장에서 구현된 것이다.

또한,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도배 전문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자발적인 학습 동아리 및 봉사단체 결성을 통해 교육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가 지속될 수 있는 학습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와 기술 기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관광과·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안면 딸기 농가 일손돕기

부안군 관광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원 25여 명은 10일 보안면 월천리에 위치한 딸기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참여 직원들은 딸기 모종 제거와 농가 주변 정리 작업 등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힘을 보탰다.

부안군 관계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의 고충을 직접 느끼고 함께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순창군, 평남 새뜰마을 준공

4년간 주거환경·인프라 개선
빈집·담장·침수지 등 정비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유대

순창군이 10일 적성면 평남마을에서 '평남마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순창군이 10일 적성면 평남마을에서 '평남마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은 주민 중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 마을의 주거환경은 물론 공동체 문화까지 함께 변화시킨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순창군의회의장과 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마을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커팅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평남마을 새뜰마을사업'은 생활 인프라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다. 평남마을은 2021년 대상지로 확정된 후, 총 15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안길 확장 및 침수지 배수 개선 △슬레이트 지붕과 빈집 정비 △노후 담장 및 혐오시설 개선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태양광 설비 구축 △CCTV 및 가로등 설치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 글쓰기, 독서동아리, 명절맞이 마을한마당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돼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민선8기 공약이행률 80% 달해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주민배심원단 운영 계획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4년차를 앞두고 실국소장, 공약사업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산업 선도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대 분야 41개 공약사업을 수립하고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이라는 비전 아래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률은 80%에 달하며,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2025년 목표인 85%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계획 반영과 국가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공약사업의 추진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시민이 직접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실행계획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오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남원시는 한국매니페스토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약이행의 투명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종자통장 지원' 청년 호응 속 순항

참여자 소통 간담회 열려
2년간 최대 1080만원 형성

순창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참여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순창군이 추진 중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이 참여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참여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200여 명과 기존 1~2년 차 참여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근무 시간 이후인 저녁 시간대에 개최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설명회에서는 종자통장 사업의 구조와 혜택, 참여 시 유의사항이 자세히 안내됐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935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35명이 중도 해지한 사례가 있어 △주소지 유지 △근로활동 지속 △매월 적립금 납부 등 기본 참여 조건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2배인 30만 원을 지원, 2년간 적립 시 최소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다.

청년의 책임 있는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도 함께해 지역 청년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군은 오는 13일까지 2023년도 종자통장 참여자 301명을 대상으로 적립금, 행정지원금, 이자 등을 포함한 만기 지급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10만시대' 완주군, 군민의 날 화합 축제 연다

비전 선포식·노래자랑 등

10만 인구를 달성한 완주군이 오는 14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제60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완주군 인구 10만 달성을 기념하며, 각계각층의 내빈과 함께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완주군 어린이 취타대의 내빈 인솔을 시작으로 60명의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난타와 고고장구팀, 60명의 라인댄스팀이 활기찬 오프닝 공연을 열며, 완주군 4개 합창단과 홍보대사 윤수연씨의 합동공연으로 60주년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되새기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인 군민에게 군민대상을 수여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각각 수여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군민의 날은 완주군 인구 10만 달성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과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완주군 애향운동본부에서는 10만 번째 군민을 포함해 다둥이 가족, 100세 어르신 등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증정한다.

1부 기념식과 2부 비전 선포식 이후에는 군민 화합 민속경기가 진행되며, 개그맨 조래훈씨의 사회로 군민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군민노래자랑은 각 읍면을 대표하는 13팀의 군민들이 참가하며, 완주군 홍보대사인 배아현씨를 비롯해, 지역가수들의 축하공연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 이순덕의원이 5일 군 향어업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내수면어업 소비 촉진 모색

이순덕의원, 향어업회 간담
지역축제 연계 등 방안 논의

완주군 내수면어업의 정책,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향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완주군 이서면이 전북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향어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향어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 차원의 연구지원, 홍보 강화, 축제와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5일, 완주군 향어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어 양식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순덕 의원을 비롯해 이향희 완주군 향어협회 회장, 최백중·유노수·손성근 부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료비 및 전기요금 등 경영비 상승 대응 △사료직불금 지원 △향어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질병 예방과 양식 기술 고도화 △향어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행정과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선봬

지역 문화격차 해소 일환
남원시민 50% 할인 혜택

남원시가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작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연극 '동백당:빵집의 사람들'은 1947년 군산의 작은 빵집 '동백당'을 배경으로, 해방 직후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를 그린 이야기다. 군산이라는 도시와 '빵'이라는 소재를 통해 전통과 근대, 개인과 공동체, 실패와 성장이라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제41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수상자 황세원, 2022년 박정자 연기상 수상자 박윤정을 포함한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며 작품성과 흡입력을 모두 갖춘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하며, 공연 티켓은 전석 1만 원으로 남원 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특성화사업 전개

소속 회원단체 효도잔치
외국인근로자 지원 등 진행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채미화)가 '2025년 여성단체 특성화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여성단체 특성화사업은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 각 회원단체의 특성과 완주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첫 시작으로 최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완주지구협의회가 '세계 적십자의 날'을 기념해 관내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및 어르신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완주군재향군인여성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부기여행(부산스럽고 여유로운 기분 좋은 여행), 새마을부녀회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완주군여성자원활동센터 친환경세제 나눔, 대한어머니회 완주군지회 모자세대 정서지원 등이 계획돼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제공

구강 관리·예방 교육 병행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 스케일링 사업을 올해도 계속 제공한다.

올해는 보건소 증축 공사로 인해 구강보건실이 기존 위치에서 보건소 2층으로 이전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구강검진과 무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스케일링 △불소도포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케일링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전문적인 방법으로 제거해 잇몸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술이다. 또한 교육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잇몸질환 예방, 자연치아 보존, 시린이 예방 등 전반적인 구강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언제나 다정 죽집' 우신영 작가 초청 강연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군이 어린이 분야 올해의 책인 〈언제나 다정 죽집〉의 우신영 작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완주군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다정한 맛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동화창작의 배경과 책을 통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이야기한다.

〈언제나 다정 죽집〉은 타인에게 베푼 작은 다정이 돌고 돌아 더 큰 다정으로 되돌아 오는 이야기다.

우 작가는 대학교수에서 2025년 전업작가로 변신해 〈언제나 다정 죽집〉으로 제30회 황금도깨비상 수상, 〈시티 뷰〉로 제14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맨홀에 빠진 앨리스〉, 〈죽음과 크림빵〉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강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완주군은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은 빛을 따라서〉(성인), 〈너에게 들려주는 다정한 말〉(청소년), 〈언제나 다정 죽집〉(어린이)까지 총 3권을 선정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구강보건의 날' 건치아동 시상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 9일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치아동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관내 15개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구강검진 심사를 실시한 뒤, 구강위생 상태가 우수한 학생 17명을'건치아동'으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군 관계자는 "구강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어릴 때부터 바른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에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구강보건의 날 주간을 맞아 시상식 외에도 △어린이 대상 구강보건 마술공연 △칫솔바꾸기 캠페인 △재래시장 구강보건 홍보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 이백면, 1일 1가구 소통행정
찾아가는 취약계층 매트리스 청소

남원시 이백면은 지난 4일부터 거동불편자, 와상환자 등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매트리스 청소, 소독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전문 소독업체인 서남환경(대표 서덕교)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해 매트리스 청소를 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가구를 직접 찾아가 전문장비를 이용 청소 및 소독을 진행했다.

집 주변 병해충 방역과 소독도 함께 진행해 건강한 잠자리 제공과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다.

이백면 황도연 면장은 "앞으로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일 1가구 소통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맞춤형 심리 서비스 지원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일 천천면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장계면과 장수읍에서 총 4일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는 이동상담 차량을 활용한 현장 방문형 서비스로 정신건강 검진과 심리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영 내용으로는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 △심리 척도지를 활용한 정신건강 상태 평가 △전문상담 인력과의 일대일 심리상담 등이 포함된다.

박점숙 장수군 보건사업과장은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군민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정착 진안군, 기술교육 개강

진안군이 귀농·귀촌한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5년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10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회(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 30여 명이며,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및 관내·외 선도농가 등 현장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귀농·귀촌 사례 소개 △버섯, 상추, 오이, 허브 등 관내 선도농장 견학 △농기계 실습 △치유농장 견학 및 체험 △토양관리 △법률 상식 및 귀농정책 등 성공적으로 진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교육은 작년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우수농가 현장견학'과 '농기계 실습' 등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해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영농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실제 농장에서 배우는 실습 덕분에 귀농 준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금선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규농업인들이 농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제18회 무주군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성황

제18회 무주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지난 10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개최됐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역 내 학습단체 간 화합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회장 유종석),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 한국4-h무주군본부(회장 이종인), 무주군4-H연합회(회장 이정훈) 등 4개 단체회원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적상면 생활개선회 '단풍 난타팀' 공연을 시작으로 학습단체 활동 우수회원 사례발표, 민속놀이, 단체별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을 함께 했으며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 결의문을 통해 △농작업 안전 수칙 준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작업 후 정리 정돈할 것 등을 다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노력하는 학습단체 회원 여러분이 바로 무주농업의 어제와 오늘을 이끌었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주역들"이라며 "농업인학습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산악레저 관광도시 도약

10월 31일까지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 블랙야크 맞손

장수군이 고기능성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와 손잡고 산악레저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사진=장수군>

장수군이 고기능성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와 손잡고 산악레저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장수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 프로젝트인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블랙야크알파인클럽(BAC)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장수군을 따라 흐르는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의 주요 산봉우리 14개 인증지점을 모두 방문해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인증지점은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덕유산 서봉(장수덕유산) △구시봉(깃대봉) △영취산 △백운산 △광대치 △봉화산 △봉화산 철쭉단지(매봉) △사치재까지 8곳, 금남호남정맥을 따라 △장안산 등 6곳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코스는 장수군의 총 14개 명산이 포함돼 있어 장수만의 수려한 산악자원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평가다.

완주자에게는 블랙야크에서 20,000 BAC코인을 제공하며, 장수군은 선착순 1,000명에게 '장수 K-샤모니' 스테인리스 컵과 키링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장수군이 산악 레저의 성지 '한국의 샤모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산악인과 관광객분들께서 장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명산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본격화

총 26가구 선정 1가구당 최대 6백만 원 지원

무주군이 '2025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 1억 5천6백만 원(복권 기금 50%, 군비 50%)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 대상 가구는 총 26가구이며, 무주군은 1가구당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해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보일러 등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최영길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장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집수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복지 실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적용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외에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총 76곳을 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에는 102곳, 2024년에는 81곳 등 대상자 필요를 반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올해 34개교에 주 3회 유제품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투입 착한 정책 호평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사업에 학생들의 건강을 한층 더 챙겨 줄 무가당 요구르트가 추가로 보급된다.

군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36개교에 사업비 1억8천만원(임실군 50%, 임실치즈농협 50%)을 지원해 주 2회 유제품 무상급식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지원을 확대해 34개교에 사업비 2억7천만원(임실군 60%, 도교육청 40%)을 지원해 주 3회 유제품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유제품 지원이 이뤄지면서, 기부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부의미를 안겨주고 있다.

무가당 요구르트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아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건강한 발효유로, 어린이 비만 예방과 당 섭취 조절에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건강을 중시하는 식습관이 확산되면서 설탕을 줄이거나 없앤 무가당 식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무가당 요구르트가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착한 발효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성인 다이어트나 혈당 수치 조절, 장 건강 증진에 좋은 무가당 요구르트 확대 보급에 적극 나서며,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유제품 소비 촉진은 물론,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 건강과 지역 낙농업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전망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공공용지 활용 사유지 측량비 지원

분할 측량 시 갈등 발생 재산권 보호·갈등 예방 기대

진안군이 도로나 농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안길, 농로, 하천 등에 편입됐지만,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아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유지는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 시 공공용지를 제외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토지소유자에게 전가돼 왔다. 또한, 공공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둘러싸고 이웃 주민 간 통행·진입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진안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분할 측량을 목적으로 할 경우 측량비를 지원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해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용지로 활용 중인 사유지를 보유한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랜드마크 조성 군민 공감대 형성

목조전망대 설명회 개최

진안군이 추진 중인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과 관련해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군은 5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계획(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11개 읍·면 주민과 각 기관·단체 등 190여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부 주민들은 목조전망대 조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다수 참석 군민들은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마이산에 이은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진안을 위해 뜻을 모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진안의 자연과 문화, 미래가 어우러지는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진안다운 친환경 전망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총 32건의 안건 심의

제34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4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13건, 집행부 제출 안건은 19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장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양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이다.

집행부는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을 제출했으며, 특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는지 철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장종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란 사태 이후 얼어붙은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우리 의회도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아오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이 무단 방치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공공용지 방치 폐슬레이트 43톤을 오는 20일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해 신속하게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임실군, 공공용지 방치 슬레이트 43톤 수거·처리

6월 말까지 지속 처리

임실군이 무단 방치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공공용지 방치 폐슬레이트 43톤을 오는 20일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해 신속하게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기존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방치된 슬레이트 수거·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군은 2018년부터 방치 슬레이트 수거·처리 사업에 총 5억9천만원을 들여 총 484톤 방치 슬레이트를 수거 처리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통해 하천 및 야산 등에 방치돼 있는 폐슬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총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405동(주택 320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55동)을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천적 활용 친환경농업 실천 교육

무주군은 지난 10일 안성면 어울림센터에서 '천적 활용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원예작물 천적 투입 효과증진 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하나로 친환경 해충 방제 기술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농가에 적용을 확대할 목적으로 실시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했던 토마토 재배 24농가는 이 자리에서 천적의 생태를 비롯해 효과적인 투입 시기와 방법,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주)그린아그로텍 김진호 강사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미끌애꽃노린재'와 '담배장님노린재' 등 주요 천적의 특성과 관리 요령을 중심으로 다뤄 관심을 모았다.

농가들은 "사례 중심 교육이다 보니 실질적인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준회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소득작목팀장은 "천적을 활용한 농업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의 토대가 되고 농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에쓰오일(주) 군산저유소, 저소득 청소년 취업준비 성금 기탁

에쓰오일(주) 군산저유소(소장 박석현)가 1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성금 8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에쓰오일(주) 군산저유소는 2017년부터 매년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를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0명의 청소년들이 이 지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올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업 준비 청소년 6명에게 학원비 및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 협력 강화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교류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미국 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과 상호 학생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은 10일 도의회를 방문한 에디 컨거 미국 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양국 학생들이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지난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부터 에디 컨거 이사장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간담회 후 에디 컨거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은 의회 본회의장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문 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전북과 텍사스를 잇는 가교가 되어, 미래 세대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우정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도의회를 방문한 에디 컨거 미국 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았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이 강사로 임실 성수면 목공예 교실

임실군이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의 소프트웨어 사업인 목공예 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성수면 관내 21개 배후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성황리에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목공예 프로그램은 성수면 내 위치한 한국목조건축학교와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목조건축학교를 수료한 주민들이 주민 강사로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뿐만 아니라 배우는 즐거움이 배가 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주)금강피씨, 군산시에 여름나기 성금 1,000만원 기탁

매년 꾸준한 기부로 모범

㈜금강피씨(대표 서상준)는 10일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금강피씨는 군산시 서수면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 전문 개발·생산 기업으로, 매년 성금·성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사랑의 열매 '지역사회공헌 명문 나눔기업'으로 선정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대표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서상준 대표는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심할 것으로 보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더 걱정된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 대강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독거노인에 밑반찬 나눔

남원시 대강면 새마을 지도자(회장 황인범), 부녀회는 지난 9일 대강행복문화센터에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대강면 새마을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회원들이 여름철 계절 음식인 열무물김치를 직접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 및 마을회관 50곳에 2kg씩을 전달했다.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 회원들은 바쁜 농번기임에도 잠깐 시간을 내어 반찬 나눔으로 봉사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천천면지사협, 면민의 날 '팝콘 나눔' 캠페인

장수군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열린 '천천 면민의 날' 행사에서 '팝콘 나눔' 부스를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약 6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협의체는 팝콘을 나누며 주민들에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으로 하나된 익산 남중동, 주민화합 마을축제

익산시 남중동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2회 마을 축제가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축제는 '남중동 화합 한마당-남중 앤 情(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주제에 걸맞게 지역 8개 단체가 함께 자발적으로 행사 재원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해 축제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참여 단체는 남중동 발전위원회를 비롯해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름다운봉사단 △자율방범대가 힘을 모았다.

축제는 개회식과 선포식으로 시작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어르신을 위한 짜장면 나눔, 아나바다 장터, 우리 마을 사진전, 보건소 건강체크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어우러졌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우미린어린이집,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 기탁

군산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우미린어린이집(원장 김선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소정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시 내흥동 우미린어린이집은 2024년 11월 8일 개소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지난 9일 열린 기탁식에 참석한 김선자 원장은 "원아,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나눔 문화체험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라면서, "이번 나눔 활동이 아이들의 따뜻한 성장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발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운 소중한 경험이 된 이번 행사의 성금은 구암동 저소득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의 밑거름으로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남매안경본점, 공유냉장고에 라면 기부

정읍시 남매안경본점렌즈미가 꾸준한 기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지난 9일, 남매안경본점렌즈미(대표 박점군)는 시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공유냉장고에 라면 50박스를 기탁했다.

박점군 대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돼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대한환경운동본부, 완주군 삼례읍 골목 방역 봉사

대한환경운동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완주군 삼례읍 일대에서 해충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온 상승과 강우로 인해 해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주택가 밀집지역, 시장, 아파트 단지, 웅덩이, 빈집 등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한환경운동본부 회원 15명은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감염병 예방에 힘을 보탰다.

/완주=김명곤 기자

〈一事一言〉

새 정부가 과거에서 배워야 할 인사와 정책(2)

안종주
보건학 박사

다시 말해 전문성(예측성)과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는 식의약품 파동이 생길 수 있는 식약처와 팬데믹 등을 대비해야 하는 질병관리청, 재난·안전 지휘 사령탑인 행정안전부 등에 배치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대표적 인사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과 소통에 열정을 바쳐 매진했고 확산 방지 전략을 잘 구사했다. 그의 열정은 문재인 정부 대표적 성공 사례로 지금까지 평가받는다. 류영진 처장의 경우와 비교해 살펴보기만 해도 어디에 어떤 인재를 발탁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새로운 정책을 펴려고 하는 부처에는 혁신형 인물이 적합하다.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 정책을 펴려고 하는 환경부(기후에너지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개혁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처의 경우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동시에 갈등 조정 능력, 정책 신념이 강한 인사가 좋다. '전문가형+혁신형+현장소통형'의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료 출신은 어울리지 않고 정치인이나 과학기술자, 언론인, 기업인, 시민단체 출신 가운데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 더 적합하다. 다만 관료 출신 가운데 삼박자 자질을 지닌 인물이 있다면 예외다.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부문, 즉 경제부처에는 관료형이 좋다. 전·현직 관료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나 국방부, 통일부의 수장, 총리 등에는 정치력이 필요하고 그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전·현직 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로 괜찮을 것이다. 장·차관이나 장·차관급 조직의 장은 정무직이다. 특정 분야 전문가보다는 전문가이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가 좋다. 다시 말해 행정, 위기관리, 조직관리, 소통 능력, 현장 이해 등과 국제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대통령, 집권당과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여성 안배, 지역 안배 등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바람직하다. 특정 대학 출신이나 특정 지역 출신을 너무 과도하게 임명하는 것은 통합을 해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 다만 통합 명분으로, 또 성비 균형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 함량 미달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정부 실패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재풀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곧 국민의 삶이다. 새 정부를 이끌 인물은 신념과 정책을 국민 속으로 들어가 펼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요자, 즉 국민이 받아들일 자세와 역량이 덜 되어 있을 때 이를 밀어붙이게 되면 갈등만 쌓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정책, 특히 혁신 정책을 펼 때는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 원칙은 정책의 완급, 즉 우선순위를 잘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좋아할 정책은 쇠가 달았을 때 두드려야 하듯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모든 정책에는 일부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신념이 덜 형성되어 있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장난질(예를 들면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통해 개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둘러야 부작용이 최소화하고 효과가 극대화하는 일들이 있다. 내란(동조) 세력 척결을 위한 작업, 쿠데타 방지를 위한 군 개혁과 제도 개혁,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는 일, 친일식민 역사관, 즉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세력을 뿌리 뽑는 일,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는 세력과 이를 이용해 돈 버는 집단,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각종 음모론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이를 통해 정치·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응징과 처벌 등과 관련한 입법, 제도 개혁은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대표적 사안으로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서둘러야 하는 성격이지만 이미 심각한 갈등이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형성돼 고도의 정치력과 소통 과정이 더 필요하며, 너무 서두르다가는 동티가 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다. 대표적으로는 의대 정원의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문제 등이다. 이런 일들은 지향과 가치도 중요하나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숙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구성 방식이 최대한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중장기 개혁 과제로는 산업구조 개혁, 개헌, 공영언론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돌봄 개혁, 노인 기준, 주당 노동 시간 등을 꼽을 수 있다.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서는 이들 가운데 신속 과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런 개혁 과제 실행을 위해 각각의 부처와 대통령실 각 수석실이 따로 놀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것도 많으므로 총괄하는 특별기획팀을 총리실과 대통령실에 각각 두고 국회에도 관련 부서를 두어서 일정 관리와 부정합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효과적 추진을 위해 메시지 개발과 홍보, 예산 등도 충분히 제때 뒷받침해야 한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전북경제 도약대 돼야

전북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 56곳을 '성장사다리'로 선정하고 이들을 내수와 수출 양축의 견인차로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아래 추진되는 이번 '2025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매출 규모와 성장 잠재력에 따라 돋움 기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다섯 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기술개발·시제품 제작·마케팅 등 수요 기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혁신기업' 부문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두각을 보이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단발성 접근 정책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글로벌 무대에 내세우려는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제도적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다. 동일 기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상위 단계 기업이 다시 하위 단계로 내려앉는 '역행' 사례를 제한하는 방식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아울러 모든 신규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진단과 개선 프로그램을 의무화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북의 경제는 그간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조, 취약한 산업 기반 등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추이며 이들의 성장은 곧 전북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다. 성장사다리 사업은 이들 중소기업들이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문제는 '선정 이후'다. 선정된 기업들이 실제로 성장을 이뤄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피드백을 통해 매년 더 정교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해외 판로 확보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사업이 전북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세심한 운영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시에 요구된다. 전북도는 향후에도 지역 내 숨은 강소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이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도내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도민들이 힘을 모아 적극 도와야 한다. '성장사다리'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전북경제의 미래를 짊어진 전략사업이다. 이 사다리를 밟고 올라선 중소기업들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시

바다에 시간을 곶고 / 문정희

시간은 뙤약볕처럼 날카로웠다
두렵고 아슬아슬하게
맨 살 위에 장대를 꽂기도 했다
그래서 삶은 때때로
전쟁을 연상시켰다
하늘아래 허리를 구부리는 것은
굴욕이 아니다

이 빗발치듯 내려꽂히는 시간 속에
허리를 구부리고, 서로 이마를 맞대고
생명과 생명은 이어져왔다
바다가 밀려오고, 밀려나가고
또 가을이 오고, 봄이 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허리를 구부려 줍는 것은

차라리 영원한 허기인지도 모른다
허기가 바다를 다시 채운다
허기가 지상에 가을을 불러온다
마치 병정들처럼
시간이 맨살 위로
장대를 들고 다가드는 시간
문득 발아래 깔리는 무수한 별들을 본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여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떼', '찔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m등을 출간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재열전

용화사 미륵불입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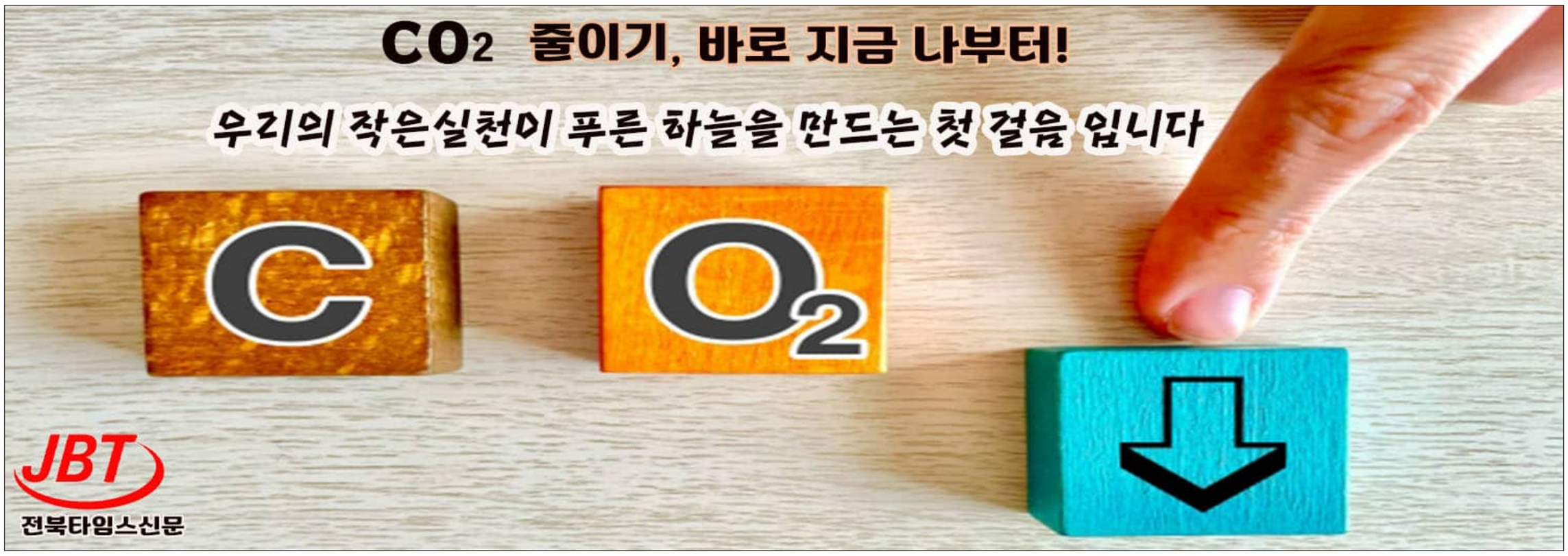
-분류 - 유물, 석조, 불상
-지정일 - 1999년 7월 9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부안군 행안면 역리 336-1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정재근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he all-new NEXO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새로워진 넥쏘 출시

- 한 번 충전으로 720km 주행 가능
- 목적지까지의 수소 잔량을 계산하여
  수소충전소를 경유하는 최적의 길을 안내하는 루트 플래너

*넥쏘 카탈로그 바로가기

HYUNDAI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18"타이어(익스클루시브): 복합 107.6km/kg(도심: 113.7km/kg, 고속도로: 100.9km/kg) | CO_2 배출량 0g/km | 공차중량 1,870kg ▶ 18"타이어: 복합 104.7km/kg(도심: 110.8km/kg, 고속도로: 98.2km/kg) | CO_2 배출량 0g/km | 공차중량 1,890kg ▶ 19"타이어: 복합95.1km/kg (도심: 99.3km/kg, 고속도로: 90.4km/kg) | CO_2 배출량 0g/km | 공차중량 1,900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동일 사양(구동축, 인승, 타이어) 모델에 "빌트인캠 장착"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 차와 빌트인캠 장착 차종의 연비 통합 인증 사양입니다. ※ 수소 충전 시간은 수소충전소의 충전 압력 및 외기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